

민평당, 6월 지방선거 '바람' 일으킬까

뉴스초점

광주시당·전남도당 창당대회 지역 국회의원들 대거 참여 중재파 의원들 합류여부 변수

국민의당 내 통합대파인 민주평화당이 1일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 5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신당 출범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선 광주·전남지역 중진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된다. 'DJ 정신 계승'을 기점으로 창당을 선언한 만큼 6월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류하지 않고 '분열'함에 따라 '동력'을 상실해 호남에서 지지를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쉽게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평당은 호남 중진 의원들이 참여한다. 다 옛날정신 계승·발전 등 'DJ 정신 계승'을 기점으로 창당을 선언한 만큼 실질적인 '호남 정당' 창당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비호남권인 안철수 대표와 결별을 선언하고, 민평당 합류 의원 대부분이 호남 중진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호남 색채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관심사는 민평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호남 정당'으로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다. 일각에서는 호남 중진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된 만큼 6월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당 창당대회 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당 창당을 축하하며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평당 창당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일당 독점 보다는 다당제의 역할에 많은 공감대를 표시했다"면서 "따라서 지역민들은 호남의 발전을 위해 지역민을 대변하는 민평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준비기간이 짧은 데다 일부 광주·전남 중진 의원들이 합류하지 않고 '사분오열' 되면서 지방선거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지배적이다.

이달 중 창당이 이뤄지더라도 지방선거 일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다, 후보 기근 현상을 보이고 있어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민평당과 통합신당 등으로 각각 나뉘면서 양측 모두 지방선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지역 8석 국회의원 중 천정배·장병완·최경환·김경진 의원이 민평당에 합류했지만, 그동안 '중재파'로 남았던 김동철·박주선 의원이 1일 통합신당 참여의 뜻을 밝히면서 권은희·송기석 등 4명은 통합신당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나마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후보를 1대1 구도로 상대하기 버거운 상황인데도, 일부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분당(分黨)으로 인해 민평당과 통합신당 후보

가 각각 나설 가능성이 커 더욱 어려운 선거 구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주요 지지기반이자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광주·전남 지방의원 상당수가 이번 발기인 명단에서 빠져 있는데, 당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장 및 광역단체장 후보급원의 인사가 눈에 띄지 않는 점도 민평당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민평당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광주·전남 지방의원들과 중재파 의원들의 합류 여부가 추후 민평당의 가능성과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지방선거 이슈' 되나

시의회, 공론화 주장 의견 수렴

광주시, 계획대로 상반기 착공

광주시의회가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둔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는 일부 시민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반대 시민들이 시의회에 공론화를 요

구해움에 따라 오는 5일 이들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예초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주장하는 시민들은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이미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행됐는데 너무 뒤늦은 대응'이라는 시각 탓에 일단 의견을 들어보는 '경청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 선거와 맞물린 시기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가 자칫 정

치 이슈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이번 경청회도 시의회 주최가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마련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최근 임기 내 착공을 주장하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압박하는 카드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의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어 광주시의회 내부도 어수선한 상황이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윤장현 시장이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한 상황에서 광주시의회 차원의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공청회 등은 자칫 일부 세력의 악의적인 정치적 포석에 시의회가 동조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미 윤장현 시장 취임 초기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올 상반기에 계획대로 일부 구간을 착공한다는 입장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알립니다
 평창의 감동 더 생생하게

광주일보 특별취재팀
 평창 현지 파견
 올림픽 특집
 4개 면 마련

광주일보와 강원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뜨거운 현장을 전하기 위해 함께 합니다.

광주일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계올림픽을 지면에 담기 위해 사진·체육부 김진수 기자와 김여울 기자를 오는 5일 평창 현지로 파견합니다. 이들은 전국 회원사의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24명으로 구성된 특별취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평창 올림픽은 9일 역사적인 개막을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취재력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해 온 두 김 기자의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일보 독자분들에게 생생한 평창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평창 올림픽은 북한이 함께하는 '평화의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려 있는 지구촌의 겨울 스포츠 대축전 보도를 위해 광주일보는 6일부터 폐막식 다음 날인 26일까지 '평창특집'에 4개 면 이상의 지면을 할애할 예정입니다.

풍성한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설로 평창 올림픽의 재미와 감동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스켈레톤
 윤성빈

광주일보

'오늘의 수목 -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주제

9월 1일 개막·북한 참여 추진

오는 9월 1일 개막하는 '2018 전남 국제 수목비엔날레'의 주제가 '오늘의 수목-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로 정해졌다.

올해 전남에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국제미술행사, 수목의 전통성과 현대성의 비교 전시를 통해 수목의 미래 방향성 정립에 방점을 찍는다. 전남도는 북한 작가의 참여도 추진할 예정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전남도는 1일 '2018 전남 국제 수목비엔날레'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목포 갯바위권·유달산권, 진도 운림산방권에서 열린다.

진도권역에서는 전통 수목의 재발견, 목포권역에서는 현대 수목의 재창조라는 콘셉트로 수목의 전통성과 현대성의 비교 전시를 통해 미래 방향성을 정

립할 계획이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 국 작가 300여명이 수목을 기본으로 한 평면, 입체,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수목비엔날레는 지난해 7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았으며, 국비 12억 원을 포함해 도비 28억원 등 4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개최 기간이 광주 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와 상당 부분 겹쳐 광주와 전남에서 함께 열리는 현대·전통 미술 비엔날레가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꽃잎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결게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인 스킨을 경험하세요

HERA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